

## 선비의 교수

康 奉 根  
(全北大 國語教育科)

燕巖 朴趾源은 『兩班傳』에서 ‘讀書曰士’라고 하여 선비를 독서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시대 한문으로 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양반뿐이었다. 부너자나 하층민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한글로 된 책들은 소설책이 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대부들의 시각으로 보면 언문 이야기책이나 읽는 것은 독서라고 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한문으로 된 경서나 문집을 읽어야만 독서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사대부가의 부너자나 하층민은 여가를 이용하여 이야기책을 읽었을 테지만, 사대부들은 벼슬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생업에 종사하지 않으니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독서계층을 선비라고 한 것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선비가 독서를 하면 그 恩澤이 四海에 미치고, 그 功이 萬世에 드리워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독서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실학자인 그가 空理空論의 虛學을 비판하고, 利用 厚生の 實學을 강조한 말이다. 이러한 燕巖의 입장에서 보면 “賢而好讀書”하여 평생을 글만 읽었던 정선 양반이 천 석의 관곡을 꾸어다 먹고 갚지 못하는 무능함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선비의 무능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의 학문이 세상을 가르치며, 길으로는 위선적인 행동으로 못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추악한 일을 일삼는 것이다. 이러한 선비의 잘못된 학문과 추악한 행동을 비판한 작품이 『虎叱』이다.

『虎叱』에서 시장가가 든 범에게 佞鬼(호랑이 귀신)들이 먹이를 추천하는데 먼저 의원과 무당의 고기를 추천한다.

“東門에 먹을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을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는 입에 온갖 약초를 머금어 살과 고기가 향기롭습니다. 西門에도 먹을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을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는 온갖 귀신에게 아양을 부려 날마다 목욕제하여 고기가 깨끗한즉 이 둘 중에서 골라 잡수시기 바랍니다.” 범이 수염을 떨치고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醫란 疑인 만큼 그 의심스러운 바로써 모든 사람에게 시험해서 매년 남의 목숨을 끊은 것이 수만 명이고, 巫란 誣인 만큼 귀신을 속이고 인민을 현혹시켜 매년 남의 목숨을 끊은 것이 수만 명이네. 그래서 못 사람들의 노여움이 뱃속까지 스며 化하여 금잠(똥 속에 독이 있는 누에)이 되었으니 독이 있어 먹을 수가 없네.”

창귀가 추천한 의원과 무당의 고기는 외관상으로는 향기롭고 깨끗하게 보이나, 그 속에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다는 범의 말은 곧 의원과 무당의 폐단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의원과 무당을 비판하는 것은 이 글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다. 범이 의원과 무당의 고기를 거절하자 창귀들은 선비의 고기를 추천한다.

“이런 고기가 숲속에 있사온대 인자한 간과 의로운 쓸개에 응성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순결을 가슴에 품었으며, 樂은 머리 위에 이고, 禮는 신처럼 신고 다닙니다. 또한 입으로는 百家의 말들을 외며, 마음으로는 만물의 이치를 통달하였으니 그를 顏德之儒라 부릅니다. 등살이 오붓하고, 몸집이 기름져서 五味를 갖추어 지냈습니다.”

선비에 대한 창귀의 설명은 선비의 외관상으로 나타난 모든 아름다운 점을 다 열거한 것이다. 의원이나 무당의 고기를 거절했던 범은 여기에 식욕을 느끼고 군침을 흘리면서 좀더 자세히 듣고자 한다. 이에 창귀들은 다루어 가며 선비의 고기에 대하여 설명한다.

“一陰一陽을 道라 하는데 저 선비가 이를 꿰뚫으며, 五行이 相生하고, 六氣가 서로 배푸는데 저 儒가 이를 이끌어 주니 먹어서 이보다 더 맛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범이 이 말을 듣자 안색이 변하면서 불쾌한 어조로 말한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기운이 사라지고 생김에 불과하거늘 그들이 둘로 나누었으니 그 고기가 잡힌 것이요, 五行은 각기 제 위치가 있어 처음부터 서로 낳는 것이 아니거늘 이제 그들을 억지로 子母로 나누고, 짜고 신 맛을 분배하였으니 그 맛이 순수하지 않을 것이며, 六氣는 스스로 행하여 배틀거나 이끌어줄을 기다리지 않는데 이제 망명되어 財成, 輔相이라 하여 그 功을 내세우려 하니 그것을 먹는다면 어찌 딱딱하여 채하거나 목구멍에서 도로 나오지 않겠느냐?”

五行과 六氣에 대한 창귀의 말과 이에 대한 범의 비판은 결국 선비들의 비실용적인 空理空論을 지적한 것이다. 五行은 金, 木, 水, 火, 土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들은 인간의 생활과 관계가 있어 利用厚生의 재료가 되는 것인데, 후세의 僞學들이 이를 억지로 끌어다가 相生이니 相剋이니 하는 헛된 이론을 만들어 낸 것으로 실학자인 연암은 범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空理空論만 일삼는 선비들은 실속이 없고, 결단 딱딱해서 먹을 수 없는 고기가 되고 만다. 결국 창귀와 범의 고기맛 논쟁은 선비들이 실생활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헛된 이론을 전개시킴으로써 虛學만을 일삼고 있음을 풍자한 것이다.

선비의 空理空論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는 그의 위선과 추악한 행동이다. 『虎叱』의 다음 내용에서는 北郭先生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나이 마흔에 2만 5천 권의 저서를 낸 대학자이다. 그래서 천자가 그의 養를 아름답게 여기고, 제후가 그의 이름을 사모했다. 이로 보아 그는 탁월한 학문적 업적과 그에 걸맞는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道學君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겉모습에 불과하다. 어느날 그는 한밤중에 과부의 안방에 들어가 음탕한 짓을 저지르려다가 과부의 아들들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다 똥구덩이에 빠졌고, 겨우 거기에서 벗어나자 이번에는 아직까지도 시장기를 못 채운 범을 만나게 된다. 그러자 북곽선생은 범의 앞에서 온갖 아첨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북곽선생의 실상을 뚱히 알고 있는 범은 그의 잘못에 대하여 질책을 가하지만, 북곽선생은 끝내 뉘우침이 없이 아첨만을 함으로써 강자 앞에서 나약해지는 위선자의 본질을 드러낸다. 범은 북곽선생이 뉘우치는 기색이 없자 그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고기로 판단하여 버리고 떠난다. 그는 끝까지 구제받을 수 없는 인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燕巖은 북곽선생과 같은 인물을 發塚之儒에 비유한다. 發塚之儒는 『莊子』 外物篇에 나오는 이야기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비는 『詩經』이나 『禮記』의 내용을 구술로 남의 무덤을 파헤친다. 大儒가 小儒에게 말했다. “東方이 돌아온다. 일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느냐?” 小儒가 말하기를 “아직 시체의 옷은 벗기지 못했으나 입 안에 구슬이 있습니다.” “『詩經』에 있느니라. ‘푸르고 푸른 보리는 무덤가에 무성하네. 살아서 남에게 배물지 못했거늘 죽어서 이제 구슬을 입에 무는가?’ 라고.” 시체의 머리털을 붙잡고 턱을 누르고서 小儒는 쇠망치로 턱을 두들겨 철저히 그 두 불을 벌려 입 안의 구슬을 다치지 않도록 했다.

이 글은 『詩經』이나 『禮記』의 명분을 억지로 끌어대서 남의 무덤을 파 구슬을 훔치는 것과 같은 흉악무도한 짓을 하는 선비들을 공격하기 위한 寓言이다. 한밤중에 그와 같은 행동을 자행하고서도 날이 새면 그들은 어질고 덕을 갖춘 君子の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런 점에서 發塚之儒와 북곽선생은 같은 유형의 인물이다. 燕巖은 그가 살았던 시대에 걸어서는 가장 어질고 선한 체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추한 행동을 일삼는 위선적인 道學者들의 실상을 發塚之儒와 같은 인물로 본 것이다.

오늘날은 사회계층과 직업이 다변화하여 옛날의 선비를 오늘날의 어떤 계층이나 직업과 동일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선비가 독서계층이며, 후학을 가르치는 일이 그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였다고 본다면 오늘날 학문의 연구와 교육을 업으로 삼고 있는 교수가 옛날의 선비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교수들은 스스로 선비임을 자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燕巖이 선비가 독서를 하면 그 은택이 사회에 미치며, 그 공이 만세에 드리운다고 말한 내용은 그대로 오늘날 교수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대학의 사명을 진리의 탐구와 교육 그리고 사회에 대한 봉사라고 말한다. 그것은 곧 大學教授의 사명이기도 하다. 교수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다면 무능한 교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의 학문이 사회를 바로 인도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일신의 영달이나 사회의 부정적인 방향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이것 또한 마땅히 비판되어야 한다.

언젠가 신문에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읽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교수를 첫번째로 꼽고 있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아직도 교수를 존경하고, 교수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교수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해준다. 이와 반대로 예체능계의 입시부정 사건이나 대학의 부정입학 사건이 신문지상을 장식할 때마다 교수들은 몸둘 곳이 없다. 예체능계의 입시부정이 특정한 분야의 몇몇 사람에게 국한되고, 신입생의 부정입학이 재단이나 소수의 보직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교수들은 그것은 나와 무관한 것이라고 발뺌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교수의 임용과정에서 벌어지는 혈연·학연·돈으로 인한 비리에는 그 책임이 전체 교수에게 돌려진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아부하여 전국구 국회의원이거나 한 자리 얻으려는 교수들의 추태도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걸어서는 명분과 체면을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추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면 이는 어두운 밤에 남의 무덤을 파서 구슬을 훔치는 發塚之儒와 다를 바가 없다.

다른 직업에 비해서 사회와 제자들로부터 일정한 부분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교수들은 우리가 내세우는 명분이나 자긍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의 학문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생활 자체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나는 무능한 교수이거나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교수가 아닌가? 나는 北郭先生이나 發塚之儒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물음은 오늘날 대학교수들이 수시로 자문해 보아야 할 질문이며, 교수가 진정한 선비로 남아있기 위한 자성찰의 몸짓이다. ■